

2025년 8월 첫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

2025년 8월 첫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은, 무더운 여름 한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는 성도들의 예배를 위한 마음의 준비입니다. 이번 주 기도문은 공동체의 회복과 믿음의 결단, 그리고 개인의 영적인 회복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25년 8월 첫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1 – 여름 가운데 드리는 감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시편 107:1)

주님,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저희에게 쉼과 안식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날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여름의 열기 속에서도 식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며,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쁘고 분주할 때에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잠시 멈추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절이 바뀌어 가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여행 중인 성도들, 병상에 있는 이들, 삶의 곤고함 속에 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고백과 감동으로 주님께 드러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여름의 끝자락까지 저희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 받으시는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25년 8월 첫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2 – 여름 수련회와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편 119:9)

사랑의 주님, 이 여름에도 다음세대의 영혼을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깊이 심기게 하옵소서. 부모들이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인내를 주시고, 교사들과 사역자들에게도 성령의 능력과 뜨거운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이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세대를 향한 교회의 비전이 회복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기도로 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옵소서. 방학 중에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장차 이 민족과 교회를 이끌어 갈 건강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5년 8월 첫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3 – 여름 질병과 건강을 위한 중보

“내가 여호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26)

치유의 하나님, 이 여름에도 우리 몸과 영혼을 보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감염병과 더위로 인해 건강을 잃기 쉬운 시기입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돌봄을 받는 자들과 돌보는 자들 모두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웃과 가족의 사랑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육신의 치유뿐 아니라 마음의 평안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여름을 지나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주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도 주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병든 자들에게 회복과 소망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5년 8월 첫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4 – 일상 속 믿음의 결단을 위한 기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2)

주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며 기도드립니다. 주일 예배로 시작된 이 하루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의 시작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크고 작은 결정 앞에 설 때,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순간의 유혹보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의 눈보다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때로는 외롭고 버거울 수 있지만, 그 길이 결국 주님과 함께 걷는 가장 복된 길임을 알게 하소서. 언제나 말씀 위에 굳게 서며, 흔들림 없는 믿음을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 끝에서 주님의 미소를 만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